#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가계재정복지

## - 가족유형을 중심으로 -

# The Intra System Dynamics and Family Financial Well-being

## - Focusing on family type -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고 보 선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eju College of Technology
*Full-time instructor* : Koh, Bo-Sun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family type based on intra system dynamics explained housewives' objective and su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a stratified sample of 662 housewives in Seoul who usually managers household finances.

The questionnaire included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scale, communication scale, financial management scale, and su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scale. Frequency, percentile, mean, $\chi^2$, Pearson's correlation,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had resulted in five major findings:

1. Among four intra system dynamics elements were highly relationships.
2. Families were categorized by four types, named personal-oriented(N=164), managerial-oriented(N=169), dynamics(N=154), and non-dynamics(N=134) family.
3. The four types of family were influenced by age of housewives, duration of marriage, and job status of husbands.
4. The four types of family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su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The personal-oriented family typ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o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5. The dynamic family type showed the highest effect of su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The personal-oriented family type showed the greatest effect of objective family financial well-being.

The recommendation for future research and better ways to enhance level of intra system dynamics elements and family financial well-being.

# I.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족체계는 효율적인 가족자원관리를 통하여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과 만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가계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가족자원관리의 효율성은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한 가족체계의 내적·외적 대처 및 적응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기대되는 가족체계의 발달과제의 계획과 수행을 용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가족체계를 성장,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시켜 연구되고 있으나, 가족체계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을 볼 때, 가족체계 내에서의 역동적 요소의 구체적 작용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가족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행동을 근거로 가족유형을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족체계의 역동성 향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Olson(1983)의 순환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요소간의 선형성, 곡선성 가정에는 불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선형성을 가정하고 검증된 연구가 대부분이다(Beavers & Voeller, 1983; 김수연·김득성, 1993; 박경숙, 1993; 최규련, 1994; 전귀연·최보가, 1995; 김정옥, 1995).

가족체계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가 상호 작용하여 가계의 재정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두 하위체계의 상호작용은 객관적인 생활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가계의 재정복지는 가족체계의 양적인 측면인 객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평가와 체계의 질적 측면인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계의 재정복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관리자는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의 작용을 근거로 가족체계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각 가족유형의 가족자원관리의 효율성 방안과 이를 통한 가계의 재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순환모델의 요소에 따라 가족을 유형화하고 이를 가족유형에 따라 관리행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있으나(이정우·이미선, 1995; 이연숙 a, b, 1996), 가계의 재정복지와 관련시킨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고보선, 1996; 계선자·한정화, 1997),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를 가계의 객관적 재정복지와 주관적 재정복지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에 근거하여 가족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유형에 따라 가계의 객관적 재정복지와 주관적 재정복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에 근거하여 가족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유형과 가계재정복지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각 가족유형별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1. 가족체계의 역동성의 개념과 요소

가족을 유형화시키는 가족체계의 행동특성을 Deacon과 Firebaugh(1988)는 가족체계내 역동성이라고 하고, 역동성의 요소로써 Olson(1983)의 순환모델에서 사용된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에 가족자원관리행동인 기능성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또한 가족체계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상호작용하여 체계의 역동성을 향상시키며, 이러한 체계내 역동성으로 가족체계 자체가 전체로서 발달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 중 응집력은 가족구성원

들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하며,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대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규칙을 변화시켜 대처하는 능력이며, 기능성은 가족체계 구성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분배, 사용, 관리, 보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구성원들간에 의미를 전달, 생성, 반응하기 위하여 언어적·비언적 방법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응집력, 적응력, 그리고 기능성을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면, Olson 등(1983)이 제시한 곡선성 가설은 주로 임상가족을 포함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Anderson, 1986; 유순덕, 1987; 도수경, 1990; 정민자, 1992),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력은 최적의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라는 주장이 있다(Beavers & Voeller, 1983;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Olson(1989)도 문제가족을 제외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응집성과 적응력이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Lavee 와 Olson(1991)은 일반가족을 연구할 경우에는 선형적 관계를 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응집성 수준별로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구분하고, 적응력 수준별로는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리 나라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응집성과 적응력이 기능적인 가족관계와 선형적 관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연·김득성, 1993; 박경숙, 1993; 최규련, 1994; 전귀연·최보가, 1995; 김정옥,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간의 선형성을 가정하고, 이들 요소를 근거로 하여 가족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유형에 따른 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재정복지의 차이와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이 남편보다 응집력 수준이 높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였다. 고정자와 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응집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수연과 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은 높은 응집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순옥(1990)은 고등학교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형제자매유무, 출생순위, 부부간의 연령차이 등의 가족구조변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고정자와 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적응력 수준이 높았으며, 김수연과 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과 적응력을 근거로 가족체계를 유형화한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는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은 가족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종교가 일치할 경우, 부부가 전문·관리직일 때,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핵가족이고, 종교가 있는 가족이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높은 가족이 많다고 하였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응집력과 적응력이 낮은 가족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홍성애, 1984; 한유미, 1990). 그러나 고승자(198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상호작용 유형을 보인다고 하여 일치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부의 취업여부는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김진희, 1989; 한유미, 1990).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었으며(김순옥, 1990; 이정우·이정숙, 1992; 오경희,

199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다(홍신례, 1987; 서수경, 1988; 김순옥, 1989; 서수경 · 이정덕, 1991; 이정우 · 이정숙, 1992; 오경희, 1995). 가족의 소득수준과 효율적 의사소통과 정적관계가 있었으며(홍신례, 1987; 김순옥, 1990; 조은경 · 서병숙, 1994), 자녀수와는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신례, 1987; 이정우 · 이정숙, 1992; 오경희, 1995).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영미 · 이길표, 1984; 박미금, 1985)와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선행연구(Newton, 1979; Garrison & Winter, 1986; Fitzsimmons, Hafstrom, & 임정빈, 1991)가 있어,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은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의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데,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이연숙 · 두경자, 1991)와 가계소득과 효율적인 관리행동간에 부적 관계의 연구결과(Garrison & Winter, 1986; Fitzsimmons, Hafstrom, & 임정빈, 1991)가 있다. 교육수준은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효율적인 관리행동과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이영미 · 이길표, 1984; Garrison & Winter, 1986; 이연숙 · 두경자, 1991; 이정우 · 이정숙, 1992;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 1995), 가족원수와 효율적인 관리행동은 부적관계를 보였다(Garrison & Winter, 1986; 이연숙 · 두경자, 1991).

이연숙(1996 a)의 연구결과에서는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가정관리행동의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들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응집성, 적응력, 그리고 의사소통의 인적 하위체계 요소들간의 상관관계가 가정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 역동성 요소들은 또한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인적 하위체계 요소를 강조하는 가족이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를 강조하는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연숙(1996 b)은 가정관리의 효율성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과 밀접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족원간의 역동적 관계가 보다 밀접하고 적응력이 있을 때,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의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3.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와 가계재정복지

가계재정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적정도와 안정도의 정도를 말하며(Walson & Fitzsimmons, 1993), 재정복지는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계의 재정복지 개념은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들 척도는 상호영향력을 미치므로, 이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영숙(1994)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를 경제복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경제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의 기반이 되는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과 같은 객관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소비생활에서 인지한 경제적 복지감에 대한 측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trumpel(1973)은 경제적 만족이나 복지감은 소득, 직업 등 객관적인 조건보다 사회심리적인 환경과 가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경제복지의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은 객관적, 주관적 척도 모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 비물질적 측면, 재화와 용역 등의 객관적 척도와 환경에 대한 태도,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지와 만족 등의 주관적인 척도를 포함시켰다.

Williams(1986)도 재정복지와 생활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즉 객관적인 측정은 현재 가계의 재정상태를 수량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주관적인 측정은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동일한 재정상태일지라도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Mammen, Helmick, 그리고 Metzen(1986)은 주관적 척도는 객관적 척도보다 측정하기가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주관적 척도는 개인의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척도와 함께 주관적 척도를 병행하면, 개인의 복지감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순금·계선자(1994)의 연구결과,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는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도인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나, 간 가정의 경제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주관적 경제수준 지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고보선·이영호(1995)의 연구에서도 재정상태만족에 대하여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이 모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재정복지 연구에 있어서 두 요소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계획과 수행행동을 중심으로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을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일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wton, 1979; Heck, 1983; 이연숙·두경자, 1992;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특히 이연숙(1996)의 연구결과에서는 역동성 요소 중 인적 하위체계 요소를 강조하는 가족이 관리적 하위체계 요소를 강조하는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보선(1996)은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를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분하여 이들 요소와 객관적,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가 가계의 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선자·한정화(1997)의 연구결과,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력이 경제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관리적 행동의 가족체계 역동성 요소와 가계재 정복지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성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가족유형에 따라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

### 2.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질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가계재무관리행동의 가족체계 역동적 요소,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1)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척도

가족체계의 인적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세 요소 중 응집력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이며, 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대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 규칙을 변화시켜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소통은 구성원들간에 의미를 전달, 생성, 반응하기 위하여 언어적·비언어적 방법의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 응집력, 적응력,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의 기능성을 촉진시키는 요소이다.

이들 척도는 Olson 등(1982)의 FACES Ⅱ(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Ⅱ) 척도, 이정우·이정숙(1992)와 김수연(199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각 6개 문항을 작성하여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77, .829, .899이다.

#### 2) 가계재무관리행동 척도

가계재무관리행동은 가족체계의 기능성인 관리적 하위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획득과 분배 및 사용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Godwin과 Carroll(1986), Fitzsimmons 등(1993)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각각 5개 문항을 작성하여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가계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재무관리행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43이다.

#### 3) 가계재정복지 척도

가계재정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 적정도와 안정도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Walson & Fitzsimmons, 1993),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현재 소유하거나 이용 가능한 객관적 재정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정복지 척도를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로 구성하였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소득과 순자산으로 구성한 결합 척도[1]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는 Rudd(1986), Danes와 Retting(1993), 그리고 Hira 등(198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는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 인지, 자원적정도 인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그리고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과 향상감 등을 5점 Likert 척도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4이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한 자녀이상을 둔 가계로 가계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주부로 한정시켰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표본은 월평균 가계소득과 자산, 가정생활주기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역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2] 유의적 표본추출 방법을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분석자료는 662부이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2$, t 검증, 일원분산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주부의 연령은 30, 40대가 5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2.32세이다. 평균 주부의 학력은 13.14년이며, 고졸 44.8%, 대졸이상 42.7%로 고졸이상의 학력이 87.5%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게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원수는 4명 4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가족원수는 4.12명이다. 결혼지속년수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결혼지속년수는 17.11년이다. 소득원수는 2명이

1) Weisbrod Hansen(1968)은 소득의 유량(flow) 개념과 자산의 저량(stock)의 개념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순자산을 연가치로 계산하였다. 순자산의 연가치란, 순자산을 모두 연금으로 투자하여 주어진 이자율 r로 남은 여생(n) 동안 연금형식으로 받을 경우 t해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를 말한다.

2) 조사지역은 1995년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강남과 강북을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강남의 상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중 지역은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하 지역은 동작구와 강서구로 구성하였다. 강북의 상 지역은 서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중 지역은 동대문구, 하 지역은 노원구로 구성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62)

| 변 인 | 구 분 | N(%) | 변 인 | 구 분 | N(%) |
|---|---|---|---|---|---|
| 주부연령 | ≤29 | 52( 7.9) |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 ≤7 | 215(32.5) |
| | 30≤ ≤39 | 199(30.1) | | 8≤ ≤13 | 106(16.0) |
| | 40≤ ≤49 | 182(27.5) | | 14≤ ≤19 | 133(20.1) |
| | 50≤ ≤59 | 145(21.9) | | 20≤ ≤24 | 126(19.1) |
| | 60≤ | 83(12.6) | | 25≤ | 81(12.3) |
| | 평 균 | 42.32세 | | 평 균 | 13.41세 |
| 주부의 교육수준 | 중졸이하 | 83(12.6) | 월평균 가계소득 | ≤150 | 118(17.9) |
| | 고졸 | 296(44.8) | | 151≤ ≤200 | 138(20.9) |
| | 대졸이상 | 282(42.7) | | 201≤ ≤300 | 193(29.2) |
| | | | | 301≤ | 212(32.1) |
| | 평 균 | 13.14년 | | 평 균 | 304.093만원 |
| 가족원수 | ≤3 | 171(25.9) | 저축액 | 0 | 69(10.4) |
| | 4 | 300(45.4) | | ≤30 | 109(16.5) |
| | 5≤ | 190(28.7) | | 31≤ ≤60 | 178(26.9) |
| | | | | 61≤ ≤100 | 168(25.4) |
| | | | | 101≤ | 137(20.7) |
| | 평 균 | 4.12명 | | 평 균 | 77.23만원 |
| 결혼지속년수 | ≤10 | 215(32.5) | 총자산 | 0 | 80(12.1) |
| | 11≤ ≤20 | 172(26.0) | | ≤5000 | 90(13.6) |
| | 21≤ ≤30 | 219(33.1) | | 5001≤ ≤10000 | 99(15.0) |
| | 31≤ | 55( 8.3) | | 10001≤ ≤20000 | 155(23.4) |
| | | | | 20001≤ ≤40000 | 97(14.7) |
| | | | | 40001≤ | 140(21.2) |
| | 평 균 | 17.11년 | | 평 균 | 28345.97만원 |
| 소득원수 | 1 | 302(45.7) | 가계재정만족[a] | ≤2 | 114(18.1) |
| | 2≤ | 359(54.3) | | 2< ≤3 | 280(44.3) |
| | | | | 3< ≤4 | 193(30.6) |
| | | | | 4< ≤5 | 44( 7.0) |
| | 평 균 | 1.67명 | | 평 균 | 2.84점 |
| 주부의 취업여부 | 취업 | | 생활격차감 | 1 | 63( 9.6) |
| | 전문직 | 80(12.2) | | 2 | 248(37.7) |
| | 관리직 | 22( 3.1) | | 3 | 169(25.7) |
| | 사무직 | 36( 5.2) | | 4 | 148(22.5) |
| | 판매서비스직 | 120(18.8) | | 5 | 30( 4.6) |
| | 비취업 | 399(60.7) | | 평 균 | 2.75점 |
| 남편직업유형 | 전문직 | 142(23.4) | 자원적정도[a] | ≤2 | 37( 5.8) |
| | 관리직 | 197(32.5) | | 2< ≤3 | 211(33.0) |
| | 사무직 | 143(23.6) | | 3< ≤4 | 295(47.6) |
| | 판매서비스직 | 124(20.5) | | 4< ≤5 | 97(15.2) |
| | | | | 평 균 | 3.30점 |
| 재정상태기대 | 1 | 7( 1.1) | 재정상태향상 | 1 | 23( 3.5) |
| | 2 | 60( 9.1) | | 2 | 86(13.1) |
| | 3 | 101(15.3) | | 3 | 133(20.2) |
| | 4 | 290(43.9) | | 4 | 261(39.7) |
| | 5 | 202(30.6) | | 5 | 155(23.6) |
| | 평 균 | 3.94점 | | 평 균 | 3.67점 |

주) $\alpha$: 5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상의 경우가 54.3%로 1명의 45.7%보다 많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련시켜보면, 2명 이상의 경우 대부분 주부가 소득원 임을 볼 때,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맞벌이 가족임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직업지위는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관리직이 3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평균 막내자녀의 연령은 13.4세로 나타나, 가정생활주기가 중학교 교육시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1-300만원 29.2%, 301만원이상 32.1%이며, 평균 소득은 약 304만원이며, 평균 저축액은 약 77만원으로 가계소득의 약 25.3%를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은 1억1만원-2억원이 전체 응답자 중 2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자산은 약 28,346만원이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재정복지에 포함된 하위 변인의 특성을 보면, 재정상태 만족은 2-3점이 전체 응답자의 4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재정만족은 2.84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의 가계재정상태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알아본 생활격차감은 2점이 3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격차감은 2.75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생활격차감을 적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적정도는 3-4점이 47.6%이며, 평균 적정도는 3.30점으로 나타나,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이용가능한 가정내·외자원이 보통이상의 정도로 적정하다고 인지하였다. 현재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더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4점이 3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향상감은 3.67점으로, 대부분 현재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더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앞으로의 재정상태는 지금보다 더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역시 4점이 43.9%, 평균 기대는 3.94점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재정상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 2. 체계내 역동성 요소와 가계재정복지의 상관관계

가족체계내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요소들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응집력은 5점 척도로 환산하였을 때, 평균 3.75점, 적응력 3.60점, 의사소통 3.49점, 관리행동 3.68점,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3.44점,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6,276.65만원이다. 응집력은 3.75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3.44점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나 가족체계의 역동성의 정도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체계가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권력구조, 역할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표 2〉 체계내 역동성 요소와 가계재정복지의 상관관계

(N=662)

| 변 인 | 응집성 | 적응력 | 의사소통 | 관리행동 | 객관적 재정복지 | 주관적 재정복지 |
|---|---|---|---|---|---|---|
| 응집력 | 1.000 | | | | | |
| 적응력 | .760*** | 1.000 | | | | |
| 의사소통 | .734*** | .766*** | 1.000 | | | |
| 관리행동 | .357*** | .414*** | .303*** | 1.000 | | |
| 객관적 재정복지 | .043 | .014 | .057 | .020 | 1.000 | |
| 주관적 재정복지 | .293*** | .322*** | .334*** | .275*** | .224*** | 1.000 |
| M | 3.75점[a] | 3.60점[a] | 3.49점[a] | 3.68점[a] | 6,276.65만원 | 3.44점[a] |
| (SD) | .75 | .75 | .79 | .61 | 6,296.17 | .66 |

주) a: 5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P<.001$.

응집력과 적응력을 촉진시키는 의사소통이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가계관리행동과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가족체계내의 역동성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응집력은 적응력($\gamma$=.76)과 의사소통($\gamma$=.73)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적응력은 의사소통($\gamma$=.77)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응집력과 적응력의 촉진기제임을 입증하였다. 관리행동은 응집력($\gamma$=.36), 적응력($\gamma$=.41), 의사소통($\gamma$=.30)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네가지 요소들이 가족체계내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Olson 등(1983)의 순환모델에 포함되었던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은 Deacon과 Firebaugh(1988)가 제시한 가족체계의 인적 하위체계에 해당되며, 가계관리행동은 관리적 하위체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인적, 관리적 두 하위체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 하위체계에 포함된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가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긴밀할수록, 상황적, 발달적 요구에 변화, 대처하는 적응력도 높고,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인 가계관리행동도 역시 인적 하위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가계관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족체계의 네가지 역동성 요소를 모두 촉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모든 역동성 요소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인적 하위체계 요소가 관리적 하위체계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응집력과 적응력을 비교해보면, 적응력($\gamma$=.322)이 응집력($\gamma$=.293)보다 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가족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원 개인의 욕구와 목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처, 적응하는 것이 더 주관적 재정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응답자는 가족체계가 발달적, 상황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변화하거나 대처할수록,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적게 느끼며, 재정상태에 만족하고, 소득을 적정하다고 인지하며, 현재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더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재정상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을 조합한 척도인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주관적 재정복지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가족체계의 모든 역동성 요소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관계의 방향성을 볼 때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의 기여 가능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관계수의 크기는 중다회귀분석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 해석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분석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따라 가족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 가계관리행동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가족유형을[3] 구성하였다. 가족유형의 빈도, 응집성,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으며, Schéffe 검증결과 가족유형의 집단에 따라서 역동성 요소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 1은 164 가족으로 나타났는데,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이 평균보다 높고, 관리행동은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인간관계지향 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2는 169 가족이며, 응집력, 적응력, 의

3) 가족유형에 대한 명명은 이연숙(1996)의 연구에서 인용함.

〈표 3〉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 분석

| 변 인 | 전 체 평 균 | 집단 1 (N=164) | 집단 2 (N=169) | 집단 3 (N=154) | 집단 4 (N=134) | schéffe (응집성) | schéffe (적응력) | schéffe (의사소통) | schéffe (관리행동) | F 값 |
|---|---|---|---|---|---|---|---|---|---|---|
| | | 평 균 | 평 균 | 평 균 | 평 균 | 1 2 3 4 | 1 2 3 4 | 1 2 3 4 | 1 2 3 4 | |
| 응 집 력 | 3.75 | 3.98 | 3.48 | 4.46 | 2.96 | 1** | 1** | 1** | 1* | 224.16*** |
| 적 응 력 | 3.60 | 3.78 | 3.36 | 4.32 | 2.82 | 2* | 2* | 2* | 2** | 210.06*** |
| 의사소통 | 3.49 | 3.71 | 3.10 | 4.27 | 2.77 | 3*** | 3*** | 3*** | 3 | 221.38*** |
| 관리행동 | 3.68 | 3.22 | 4.09 | 4.22 | 3.11 | 4 | 4 | 4 | 4 | 392.60*** |

주) ***$P<.001$.

사소통이 평균보다 낮고, 관리행동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관리지향 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3은 154 가족이며,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행동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으로, '역동적 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 4는 134가족이며,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그리고 관리행동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비역동적 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지향적 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인간관계지향 가족, 역동적 가족, 그리고 비역동적 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교차분석결과 가족유형은 주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남편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부의 연령을 보면 50대의 연령 분포가 31.4%로 가장 많게 나타난 관리지향 가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유형은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40대의 경우는 모든 가족유형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50대에서는 가족유형간 차이를 보였다. 즉 관리지향 과 비역동적 가족이 인간관계지향과 역동적 가족보다 50대의 연령분포가 많았다. 각 가족유형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관리지향 가족이 43.86세로 주부의 연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역동적 가족 43.56세, 역동적 가족 41.10세, 그리고 인간지향 가족 40.59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가족유형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간지향과 역동적 가족은 5년 이하에 각각 22.6%와 24.7%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관리지향과 비역동적 가족은 26년 이상에 각각 34.3%와 23.9%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 6-10년의 경우는 인간지향 가족이 18.3%로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다른 집단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11-15년의 경우는 역동적 가족이 9.1%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1-25년의 경우는 역동적 가족과 비역동적 가족이 각각 19.5%와 19.4%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인간관계지향과 관리지향 가족은 각각 14.0%와 14.2%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각 가족유형의 평균 결혼지속년수를 살펴보면, 관리지향형은 18.99년으로 결혼지속년수가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으로 비역동적 가족이 17.88년, 역동적 가족 15.95년, 그리고 인간지향 가족 15.10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족유형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간관계지향 가족은 남편의 직업유형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관리지향 가족은 관리직이 33.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나머지 직업유형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역동적 가족은 전문직과 관리직이 34.0%와 32.6%로 유사한 분포를 보인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13.9%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비역동적 가족은 관리직이 30.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나머지 직업유형은 유

<표 4>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 변 인 | 구 분 | 집단1(N=164) | 집단2(N=169) | 집단3(N=154) | 집단4(N=134) | $\chi^2$ |
|---|---|---|---|---|---|---|
| 주부연령 | ≤29 | 19(11.6) | 6( 3.6) | 14( 9.1) | 10( 7.5) | 21.32* |
| | 30≤ ≤39 | 52(31.7) | 50(29.6) | 54(35.1) | 37(27.6) | |
| | 40≤ ≤49 | 47(28.7) | 42(24.9) | 42(27.3) | 36(26.9) | |
| | 50≤ ≤59 | 25(15.2) | 53(31.4) | 28(18.2) | 33(24.6) | |
| | 60≤ | 21(12.8) | 18(10.7) | 16(10.4) | 18(13.4) | |
| 주부의 교육수준 | 중졸이하 | 16( 9.8) | 26(15.4) | 17(11.0) | 22(16.4) | 9.73 |
| | 고졸 | 76(46.3) | 83(49.1) | 66(42.9) | 49(36.6) | |
| | 대졸이상 | 72(43.9) | 60(35.5) | 71(46.1) | 63(47.0) | |
| 가족원수 | ≤3 | 44(26.8) | 35(20.7) | 52(33.8) | 31(23.1) | 8.29 |
| | 4 | 74(45.1) | 84(49.7) | 61(39.6) | 61(45.5) | |
| | 5≤ | 46(28.0) | 50(29.6) | 41(26.6) | 42(31.3) | |
| 소득원수 | 1 | 71(43.3) | 77(45.6) | 79(51.3) | 53(39.6) | 4.29 |
| | 2≤ | 93(56.7) | 92(54.4) | 75(48.7) | 81(60.4) | |
| 결혼지속년수 | ≤5 | 37(22.6) | 18(10.7) | 38(24.7) | 21(15.7) | 29.45** |
| | 6≤ ≤10 | 30(18.3) | 24(14.2) | 20(13.0) | 18(13.4) | |
| | 11≤ ≤15 | 26(15.9) | 25(14.8) | 14( 9.1) | 20(14.9) | |
| | 16≤ ≤20 | 17(10.4) | 20(11.8) | 21(13.6) | 17(12.7) | |
| | 21≤ ≤25 | 23(14.0) | 24(14.2) | 30(19.5) | 26(19.4) | |
| | 26≤ | 31(18.9) | 58(34.3) | 31(20.1) | 32(23.9) | |
| 주부취업여부 | 취업 | 69(42.3) | 65(38.5) | 56(36.4) | 57(43.2) | 1.94 |
| | 비취업 | 94(57.7) | 104(61.5) | 98(63.6) | 75(56.8) | |
| 남편직업유형 | 전문직 | 33(21.6) | 26(17.0) | 49(34.0) | 28(23.3) | 18.97* |
| | 관리직 | 45(29.4) | 51(33.3) | 47(32.6) | 36(30.0) | |
| | 사무직 | 38(24.8) | 39(25.5) | 28(19.4) | 32(26.7) | |
| | 판매서비스직 | 37(24.2) | 37(24.2) | 20(13.9) | 24(20.0) | |
|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 ≤7 | 67(40.9) | 45(26.0) | 55(35.7) | 38(28.4) | 17.92 |
| | 8≤ ≤13 | 24(14.6) | 28(16.6) | 23(14.9) | 28(20.9) | |
| | 14≤ ≤19 | 33(20.1) | 27(16.0) | 31(20.1) | 29(21.6) | |
| | 20≤ ≤24 | 25(15.2) | 42(24.9) | 27(17.5) | 23(17.2) | |
| | 25≤ | 15( 9.1) | 27(16.0) | 18(11.7) | 16(11.9) | |
| 월평균 가계소득 | ≤150 | 23(14.0) | 33(19.5) | 25(16.2) | 30(22.4) | 13.79 |
| | 151≤ ≤200 | 34(20.7) | 40(23.7) | 38(24.7) | 20(14.9) | |
| | 201≤ ≤300 | 45(27.4) | 50(29.6) | 44(28.6) | 44(32.8) | |
| | 301≤ | 62(37.8) | 46(27.2) | 47(30.5) | 40(29.9) | |
| 저축액 | 0 | 22(13.4) | 18(10.7) | 8( 5.2) | 14(10.4) | 15.26 |
| | ≤30 | 25(15.2) | 24(14.2) | 23(14.9) | 33(24.6) | |
| | 31≤ ≤60 | 43(26.2) | 50(29.6) | 49(31.8) | 29(12.6) | |
| | 61≤ ≤100 | 35(21.3) | 47(27.8) | 39(25.3) | 36(26.9) | |
| | 101≤ | 39( 6.3) | 30(17.8) | 35(22.7) | 22(16.4) | |
| 총자산 | 0 | 18(11.0) | 26(15.4) | 14( 9.1) | 14(10.4) | 13.87 |
| | ≤5000 | 26(15.9) | 19(11.2) | 21(13.6) | 21(15.7) | |
| | 5001≤ ≤10000 | 15( 9.1) | 33(19.5) | 24(15.6) | 21(15.7) | |
| | 10001≤ ≤20000 | 47(28.7) | 36(21.3) | 38(24.7) | 30(22.4) | |
| | 20001≤ ≤40000 | 25(15.2) | 22(13.0) | 26(16.9) | 20(14.9) | |
| | 40001≤ | 33(20.1) | 33(19.5) | 31(20.1) | 28(20.9) | |

주) *P<.05; P<.001. 집단 1: 인간관계지향, 집단 2: 관리지향, 집단 3: 역동적, 집단 4: 비역동적 가족.

사한 분포를 보였다.

남편의 직업유형별로 살펴 보면, 전문직은 역동적 가족이 34.0%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관리직은 인간관계지향 가족이 29.4%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다소 낮은 분포를 보였으나, 대체로 가족유형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역동적 가족이 19.4%와 13.9%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으나, 나머지 가족유형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족유형은 주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남편의 직업유형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5. 가족유형에 따른 가계재정복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가 가족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각 가족유형별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인간관계지향 가족의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6,939.3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역동적, 비역동적, 그리고 관리지향 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가장 높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보인 집단은 가족체계내 역동성의 네 가지 요소의 점수가 모두 높은 역동적 가족으로 나타났으며, 역동적 가족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평균점수는 14.87점이다. 가장 낮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보인 집단은 체계내 역동성 요소의 점수가 모두 낮은 비역동적 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족유형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평균 점수는 12.55점이다. 이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하위변인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하위 변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위 변인들은 역동적 가족유형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비역동적 가족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두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은 역동적 가족유형은 3점 이상의 만족의 분포가 53.3%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가족유형은 3점 이하의 만족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비역동적 가족은 3점 이하의 만족의 분포가 76.2%로 가장 많았다.

자원적정도는 역동적 가족유형이 3점 이상으로 이용가능한 가정내·외 자원을 적정하다고 하는 분포가 79.1%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가족유형은 3점 이하로 자원을 적정하다고 한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비역동적 가족은 3점 이하의 자원적정도의 분포가 61.5%로 가장 많았다.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는 역동적 가족의 경우 앞으로 재정상태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

<표 5> 가족유형에 따른 가계재정복지

| 변인 / 집단 | 객관적 재정복지 M(SD) | 주관적 재정복지 M(SD) | scheffe 1 2 3 4 |
|---|---|---|---|
| 인간관계지향 가족(N=164) | 6939.38(7434.16) | 13.59(2.69) | 1 |
| 관리지향 가족(N=169) | 5702.52(4586.73) | 13.76(2.43) | 2 |
| 역동적 가족(N=154) | 6648.79(8137.41) | 14.87(2.50) | 3 * * |
| 비역동적 가족(N=134) | 5935.52(4398.31) | 12.55(2.52) | 4 * * * |
| F 값 | 1.134 | 19.45*** | |

주) ***P<.001.

〈표 6〉 가족유형에 따른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하위변인

| 변 인 | 구 분[a] | 인간관계지향가족 (N=164) | 관리지향가족 (N=169) | 역동적 가족 (N=154) | 비역동적 가족 (N=134) | $\chi^2$ |
|---|---|---|---|---|---|---|
| 재정상태만족 | ≤3 | 100(64.1) | 109(66.9) | 71(46.7) | 99(76.2) | 28.10*** |
| | 3< ≤5 | 56(35.9) | 54(33.1) | 81(53.3) | 31(23.8) | |
| 자원적정도 | ≤3 | 72(45.6) | 52(31.7) | 32(20.9) | 80(61.5) | 55.32*** |
| | 3< ≤5 | 86(54.4) | 112(68.3) | 121(79.1) | 50(38.5) | |
| 생활격차감 | ≤3 | 116(70.7) | 136(81.0) | 105(68.2) | 100(75.2) | 7.90* |
| | 3< ≤5 | 48(29.3) | 32(19.0) | 49(31.8) | 33(24.8) | |
| 재정상태기대 | ≤3 | 37(22.6) | 41(24.4) | 27(17.5) | 58(43.3) | 27.55*** |
| | 3< ≤5 | 127(77.4) | 127(75.6) | 127(82.5) | 76(56.7) | |
| 재정상태향상 | ≤3 | 65(40.1) | 61(36.3) | 40(26.0) | 63(47.0) | 14.50** |
| | 3< ≤5 | 97(59.9) | 107(63.7) | 114(74.0) | 71(53.0) | |

주) a: 5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P<.001.

는 긍정적 기대의 분포가 3점 이상이 2.5%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가족유형은 3점 이하로 기대하는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비역동적 가족은 3점 이하의 분포가 43.3%로 가장 많았다.

재정상태 향상은 역동적 가족유형이 3점 이상으로 현재의 재정상태가 과거보다 더 향상되었다고 한 분포가 74.0%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가족유형은 3점 이하로 재정상태 향상을 인지한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비역동적 가족은 3점 이하로 재정상태 향상을 인지한 분포가 47.0%로 가장 많았다. 즉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하위 변인 중 재정상태 만족, 소득적정도, 재정상태 기대, 그리고 재정상태 향상은 가족유형별로 역동적 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비역동적 가족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적, 관리적 하위체계가 모두 향상되어야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생활격차감은 모든 가족유형은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차이를 3점 이하로 인지한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관리지향 가족의 분포가 18.0%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하여 가장 많았다. 이는 효과적인 가계관리의 계획과 수행을 통하여 현재의 생활수준과 바라는 생활수준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표 5〉의 Schéffe 검증 결과, 비역동적 가족은 나머지 가족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간관계지향과 관리지향 가족은 각각 역동적 가족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인간관계지향 가족은 관리지향, 역동적 가족보다 주관적 재정복지의 평균점수가 낮았으나, 비역동적 가족보다는 높았다. 따라서, 인적 하위체계 요소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관리지향 가족은 역동적 가족보다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이 낮았으나, 인간관계지향 가족과 비역동적 가족보다는 주관적 재정복지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행동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인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 모두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계재정복지수준이 높은 가족유형이 기능적 가족이라고 본다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은 역동적 가족이나 관리지향 가족은 다른 가족유형보다 기능적인 가족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체계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체계의 모든 역동적 요소가 향상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

〈표 7〉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 변 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주부연령 | 1.00 | | | | | | | | | | | |
| 2. 주부학력 | -.28** | 1.00 | | | | | | | | | | |
| 3. 가족원수 | .19** | -.15** | 1.00 | | | | | | | | | |
| 4. 소득원수 | .19** | -.05 | .27** | 1.00 | | | | | | | | |
| 5. 결혼 지속년수 | .96** | -.34** | .22** | .18** | 1.00 | | | | | | | |
| 6. 남편 직업지위 | .04 | -.46** | .07 | .13* | .09 | 1.00 | | | | | | |
| 7. 가정 생활주기 | .94** | -.35** | .13* | .17** | .96** | .11* | 1.00 | | | | | |
| 8. 가계소득 | .18** | .11* | .14* | .20** | .19** | -.17** | .17** | 1.00 | | | | |
| 9. 저축액수 | -.01 | .03 | .02 | .11* | -.01 | -.07 | -.04 | .52** | 1.00 | | | |
| 10. 총 자산 | .34** | .05 | .04 | -.02 | .33** | -.14* | .29** | .46** | .35** | 1.00 | | |
| 11. 객관적 재정복지 | .33** | .07 | .09 | .05 | .32** | -.18** | .29** | .71** | .46** | .95** | 1.00 | |
| 12. 주관적 재정복지 | -.10 | .09 | -.04 | .01 | -.09 | -.10 | -.11* | .19** | .32** | .19** | .22** | 1.00 |

주) *P<.01; **P<.001.

히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 수준이 높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 6.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가족체계내의 역동성 요소에 의한 가족유형 변인과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들간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7〉)

분석 결과, 주부의 연령과 결혼지속년수, 막내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한 가정생활주기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중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가정생활주기 변인만을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가계소득, 총자산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를 가계소득과 총자산의 조합척도를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할 때가계소득과 총자산 변인은 제외시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원수,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직업지위[4]이며, 여기서 주부의 취업여부는 취업을 기준으로 가변인 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가정생활주기($\beta$=.513), 주부의 교육수준($\beta$=.239), 가족원수($\beta$=.128), 주부의 취업여부($\beta$=.084),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beta$=-.170) 등 모든 독립변인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0.4%이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길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주부인 경우가,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전문직일수록,

4) 분석을 위하여, 남편의 직업유형을 직업지위로 전환시켰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8〉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독 립 변 인 | 회귀식 1 | | 회귀식 2 | | 회귀식 3 | |
|---|---|---|---|---|---|---|
|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인구학적 변인〉<br>가정생활주기(막내연령중심) | .039 | .513*** | | | .040 | .531*** |
| 주부의 교육수준 | .056 | .239*** | | | .059 | .250*** |
| 가족원수 | .082 | .128*** | | | .083 | .131*** |
| 주부의 취업여부 | .111 | .084* | | | .116 | .087* |
| 남편의 직업지위 | -.104 | -.170*** | | | -.098 | -.159*** |
| 상 수 | 7.122 | | | | | |
| 〈가족유형〉<br>인간관계지향 가족 | | | .098 | .064 | .200 | .135** |
| 관리지향 가족 | | | -.047 | -.031 | -.032 | -.022 |
| 역동적 가족 | | | .040 | .026 | .104 | .069 |
| 상 수 | | | 8.469 | | 6.981 | |
| N | 502 | | 533 | | 478 | |
| F 값 | 43.371*** | | 1.170 | | 27.679*** | |
| $R^2$ | .304 | | .007 | | .321 | |
| D-W | 1.836 | | 1.669 | | 1.828 | |

주) *P<.05, **P<.01, ***P<.001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았다. 즉 시기적으로 보면 결혼초기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소득획득과 자산축적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은 맞벌이 가족은 홑벌이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가정생활주기이며, 그 다음으로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가족원수, 그리고 주부의 취업여부 등의 순으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한 가족유형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유형 변인이 명목변인이므로 빈도가 가장 낮은 비역동적 가족(N=134)을 기준변인으로 하여 가변인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유형 변인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에서 소득과 자산 모두 가족유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 일치한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과 가족유형 변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유형 중 인간관계지향형만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2.1%이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길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주부인 경우가,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전문직일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았으며, 인간관계지향 가족이 비역동적 가족보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행동보다 인적 하위체계 요소가 강조되어야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회귀식에 가족

유형만을 포함시켰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유형 모두를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는 유의미한 영향력과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이 향상되었다. 회귀식에 가족유형만을 포함시켰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표 5〉에서도 보듯이 가족유형에 따라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유형 모두를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는 회귀식에 포함된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가족유형 중 .인간관계지향 가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 중 인적 하위체계 요소가 관리적 하위체계보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회귀식의 설명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아, 사회인구학적 변인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를 근거로 구분한 가족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인간관계지향 가족, 가족원수, 그리고 주부의 취업여부 등으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회귀식 1보다 회귀식 3에서 설명력이 1.7% 향상되었는데, 이는 가족유형의 영향력이 추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가족유형 집단별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지향 가족에서는 가정생활주기($\beta$=.510) 변인만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3.0%이다(〈표 9〉). 즉 가정생활주기가 길어질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인간관계지향 가족의 성향이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보다 가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와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고, 활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으로, 결혼초기보다 가족원들간에 서로 적응하고 대처하는 기술과 방법 및 전략을 습득하게 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가계의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표 9〉 인간관계지향 가족의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독 립 변 인 | 객관적 재정복지 | | 주관적 재정복지 | |
|---|---|---|---|---|
| | B | $\beta$ | B | $\beta$ |
|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 .040 | .510*** | -.012 | -.154 |
| 주부의 교육수준 | .039 | .162 | -.011 | -.046 |
| 가족원수 | .007 | .012 | -.087 | -.144 |
| 주부의 취업여부 | .062 | .047 | .039 | .030 |
| 남편의 직업지위 | -.022 | -.036 | .009 | .015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9.568E-04 | .284* |
| 총자산 | . | . | 2.007E-07 | .017 |
| 상수 | 7.596 | | 3.713 | |
| N | 125 | | 129 | |
| F | 7.110*** | | 2.227* | |
| $R^2$ | .230 | | .114 | |
| D-W | 1.788 | | 1.751 | |

주) *P<.05; ***P<.001.

관리지향 가족에서는 가정생활주기($\beta$=.537), 주부의 교육수준($\beta$=.239), 그리고 가족원수($\beta$=.157)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0.5%이다(〈표 10〉). 즉 가정생활주기가 길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지향 가족의 성향이 가족원들간의 응집력, 적응력, 의사소통 수준보다는 효과적인 가계관리행동이 더 높은 가족유형으로, 특히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족원수는 소득원의 근거가 되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가정생활주기이며, 그 다음으로 주부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족원수 등으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역동적 가족에서는 가정생활주기($\beta$=.581), 주부

〈표 10〉 관리지향 가족의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독 립 변 인 | 객관적 재정복지 | | 주관적 재정복지 | |
|---|---|---|---|---|
| | B | β | B | β |
|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 .040 | .537*** | -.012 | -.175 |
| 주부의 교육수준 | .056 | .239** | .002 | .011 |
| 가족원수 | .100 | .157* | -.051 | -.082 |
| 주부의 취업여부 | .050 | .037 | .143 | .116 |
| 남편의 직업지위 | -.089 | -.142 | -.028 | -.050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1.780E-04 | .070 |
| 총자산 | . | . | 2.952E-06 | .146 |
| 상수 | 6.908 | | 3.710 | |
| N | 127 | | 133 | |
| F | 10.622*** | | 1.178 | |
| $R^2$ | .305 | | .062 | |
| D-W | 2.001 | | 1.787 | |

주) *P<.05, **P<.01, ***P<.001.

〈표 11〉 역동적 가족의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독 립 변 인 | 객관적 재정복지 | | 주관적 재정복지 | |
|---|---|---|---|---|
| | B | β | B | β |
|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 .045 | .581*** | -.019 | -.274** |
| 주부의 교육수준 | .061 | .232** | -.051 | -.228* |
| 가족원수 | .094 | .143* | -.007 | -.012 |
| 주부의 취업여부 | .095 | .066 | .063 | .049 |
| 남편의 직업지위 | -.133 | -.202** | -.070 | -.118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001 | .332*** |
| 총자산 | . | . | 1.700E-06 | .191* |
| 상수 | 7.028 | | 4.391 | |
| N | 122 | | 130 | |
| F | 19.223*** | | 4.707*** | |
| $R^2$ | .453 | | .213 | |
| D-W | 1.884 | | 1.734 | |

주) *P<.05, **P<.01, ***P<.001

의 교육수준(β=.232), 가족원수(β=.143),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β=-.202)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45.3%이다(〈표 11〉).

즉 가정생활주기가 길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전문직일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그리고 가족원수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

비역동적 가족에서는 가정생활주기(β=.427), 주부의 교육수준(β=.325), 가족원수(β=.193),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β=-.249)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35.1%이다(〈표 12〉).

즉 가정생활주기가 길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가 전문직일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주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주부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지위, 그리고 가족원수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유형 변인의 영향력 중 인간관계지향 가족만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체계의 효과적 관리행동 수준보다 가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 변화에 대한 대처, 적응력,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더 높은 인간관계지향 가족의 성향을 볼 때,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체계내의 역동성 요소 중 인적 하위체계가 우선 향상되어야 함을 암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모든 가족유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가정생활주기로 나타나, 가정생활주기가 길수록,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 정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역동적 가족유형이 회귀식을 45.3% 설명하여 가장

〈표 12〉 비역동적 가족의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독 립 변 인 | 객관적 재정복지 | | 주관적 재정복지 | |
|---|---|---|---|---|
| | B | β | B | β |
| 가정생활주기 (막내연령중심) | .032 | .427*** | -.006 | -.075 |
| 주부의 교육수준 | .065 | .325** | -.005 | -.027 |
| 가족원수 | .125 | .193* | 7.264E-04 | .001 |
| 주부의 취업여부 | .181 | .143 | -.171 | -.137 |
| 남편의 직업지위 | -.148 | -.249** | -.068 | -.117 |
| 월평균 가계소득 | . | . | .001 | .339** |
| 총자산 | . | . | -1.128E-06 | -.054 |
| 상수 | 6.929 | | 3.192 | |
| N | 104 | | 111 | |
| F | 10.623*** | | 2.833** | |
| $R^2$ | .351 | | .111 | |
| D-W | 2.092 | | 1.849 | |

주) *P<.05, **P<.01, ***P<.001

높았다.

### 7.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원수,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직업지위[5], 월평균 가계소득과 총자산이며, 여기서 주부의 취업여부는 취업을 기준으로 하여 가변인 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가정생활주기(β=-.169), 월평균 가계소득(β=.182)과 총 자산(β=.147)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9.0%이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짧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과 총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요소인 소득 및 총 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월평균 가계소득이며,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주기, 총 자산의 순으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한 가족유형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가족유형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9.2%이다. 즉 인간관계지향, 관리지향, 그리고 역동적 가족은 비역동적 가족보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수준이 높았다. 이 회귀식은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보다 설명력이 0.2%가 향상되었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역동적 가족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관리지향, 인간관계지향 가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과 가족유형 변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주기(β=-.161), 월평균 가계소득(β=.186)과 총자산(β=.131)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모든 가족유형 변인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8.0%이다. 즉 가정생활주기가 짧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과 총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았으며, 인간관계지향, 관리지향, 그리고 역동적 가족은 비역동적 가족보다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역동적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리지향, 인간관계지향 가족, 월평균 가계소득, 가정생활주기, 그리고 총 자산의 순으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족유형 중 역동적 가족이 주관

5) 분석을 위하여 남편의 직업유형을 직업지위로 전환시켰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13〉 주관적 재정복지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 독 립 변 인 | 회귀식 1 | | 회귀식 2 | | 회귀식 3 | |
|---|---|---|---|---|---|---|
|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인구학적 변인〉<br>가정생활주기(막내연령중심) | -.013 | -.169*** | | | -.012 | -.161*** |
| 주부의 교육수준 | -.013 | -.055 | | | -.014 | -.061 |
| 가족원수 | -.035 | -.054 | | | -.033 | -.052 |
| 주부의 취업여부 | .014 | .011 | | | .049 | .037 |
| 남편의 직업지위 | -.044 | -.073 | | | -.032 | -.053 |
| 월평균 가계소득 | 5.822E-04 | .182*** | | | 5.951E-04 | .186*** |
| 총자산 | 1.945E-06 | .147** | | | 1.729E-06 | .131** |
| 상 수 | 3.781 | | | | | |
| 〈가족유형〉<br>인간관계지향 가족 | | | .261 | .171*** | .283 | .191*** |
| 관리지향 가족 | | | .304 | .203*** | .384 | .261*** |
| 역동적 가족 | | | .580 | .384*** | .554 | .374*** |
| 상 수 | | | 3.137 | | 3.424 | |
| N | 522 | | 582 | | 503 | |
| F 값 | 7.231*** | | 19.448*** | | 10.792*** | |
| $R^2$ | .090 | | .092 | | .180 | |
| D-W | 1.926 | | 1.983 | | 1.933 | |

주) **P<.01, ***P<.001

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체계내의 역동성 요소가 높아야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이며, 둘째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는 가족유형이 더 높은 영향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귀식 1보다 회귀식 3에서 9.0%의 설명력 증가를 가족유형의 영향력이 추가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가족유형 집단별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인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지향 가족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β=.284) 변인만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1.4%이다(〈표 9〉). 즉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향 가족에서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역동적 가족에서는 가정생활주기(β=-.274), 주부의 교육수준(β=-.228), 월평균 가계소득(β=.332), 그리고 총자산(β=.191)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1.3%이다(〈표 11〉). 즉 가정생활주기가 짧을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계소득과 총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식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계소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의 순으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영향을 미쳤다.

비역동적 가족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β=.339)만이 유일하게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11.1%이다(〈표

12)). 즉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가족유형별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관리지향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유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의 설명력 정도에서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역동적 가족유형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대한 회귀식을 45.3% 설명하여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소득과 총자산의 결합척도인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상관관계분석에서 두 변인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gamma$=.224)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유형 중 관리지향 가족의 경우는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모두 가족체계의 역동적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두 요소를 비교할 때 관리적 하위체계보다 인적 하위체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가족유형은 인간관계지향가족인 반면,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는 모든 가족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역동적 가족유형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귀식의 설명력에서 보면,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모두 역동적 가족유형의 경우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이 45.3%와 21.3%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은 가정생활주기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월평균 가계소득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관리지향 가족유형은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원수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이 없었다. 역동적 가족유형은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원수, 남편의 직업지위는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에,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과 총자산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에 근거하여 가족유형을 구분하고 가족유형에 따라 가계의 객관적 재정복지와 주관적 재정복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 째, 체계내 역동성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역동성 요소들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가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둘 째, 가족유형 중 관리지향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N=169), 그 다음이 인간관계지향(N=164), 역동적(N=154), 그리고 비역동적 가족(N=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 째, 가족유형은 주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그리고 남편의 직업지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 째, 모든 가족유형은 주관적 재정복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으나, 객관적 재정복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가족유형은 인간관계지향 가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가족유형은 인간관계지향 가족이며, 주관적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가족유형은 역동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역동적 가족유형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 회귀식의 설명력이 다른 가족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여섯째, 가족유형에 따라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를 근거로 구분한 각 가족유형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객관적 가계재정복지는 가족체계의 모든 역동성 요소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와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관계수의 크기는 중다회귀분석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 해석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객관적 가계재정복지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 모두 가계재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때, 가족자원관리교육과 상담에서 이들 요소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

## ■ 참고문헌


1) 고보선 · 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2). 269-280.

2) _____(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1996.

3) 고정자 · 김갑숙(1996). 가족의 응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4) 계선자 ·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7.

5) 김득성 · 김수연(1993). 가족의 응집 및 적응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9. 1-9.

6)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5.

7)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와 주관적 가계재정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김수연 · 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9) _____(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10) 김순옥(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43-156.

11)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12)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13) 이기영 · 조영희(1992).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0(4). 279-292.

14) 이연숙a(1996).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8.

15) _____b(1996).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71-84.

16) 이정우 ·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 응집력 ·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17) _____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18)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만족: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19) 장진경(1995).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과의 관계: Olson의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Beavers 의 체계모델의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13.

20)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13.

21) Bailey, A. W.(1987).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J. of Home Economics.* 80. 14-18.

22) Danes. S. M. & Morris. E. W.(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3). 205-215.

23) Deacon, R. E. & Firebaugh, F. M.(1989). The Factors Affecting a Family's Plan to Change its Financial Situation,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 205-215.

24) Fitzsimmons, V. S., J. L. Hafstrom, & 임정빈 (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 행동: Deacon과 Firebaugh의 모델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81-94.

25) _____, Hira. T. K., Bauer, J. W., & Hafstrom, J. L.(1993). Financial Management: Development of Scale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57-273.

26) Godwin, D. D. & D. D., Carroll(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 of Consu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27) Hafstrom, J. & S. J. Bahr(1978). Economic well-being and marital stability implications for income maintenance program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3-290.

28) Hira, T. K.(1987). Satisfaction with Money Management: Practices among Dual-earner Households, *J. of Home Economics.* 80. 19-22.

29)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30)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J., & Wilson, M. A.(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sage.

31) Rowland, V. T., Dodder, R. A., & Nickols, S. Y. (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32) Schramm, R., W.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33) Titus, P.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309-317.*